

문 27. 그리스도의 낮아 지심 (겸손하심)은 어떠한가 ?

답 27. 그리스도의 낮아 지심 (겸손하심)은 곧 그의 강생 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서 나서서 율법 아래 복종 하시고, 이 땅에서 여러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 하심과 십자가 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성경적 근거: 누가복음 2:7; 빌립보서 2:6-8; 고린도후서 8:9; 갈라디아서 3:13, 4:4; 이사야 53:3; 마태복음 27:46; 누가복음 22:41-44; 고린도전서 15:3-4

질문 1: 답 27 은 그리스도의 낮아 지심을 몇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질문 2: 그의 강생 하심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질문 3: 비천한 지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질문 4: 율법 아래 복종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질문 5: 여러가지 비참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질문 6: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질문 7: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죽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질문 8: 예수님은 왜 낮아 지셨나요?

질문 9: 예수님의 낮아 지심이 없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설명:

우리는 메시야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배웠다. 그런 대단한 자가 우리의 구속주로 오신 것이다. 그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면서도 자신의 위치를 세우시기 보다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실천하셨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내가 낮아 진다는 것은 결국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비밀은 그의 섬김에 있다. 그가 너무도 비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답 27 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6 단계로 정리했다. 우리는 6 단계를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단계: 그의 강생하심이다. 강생이란 인간으로 태어나심을 말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심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다. 무한하신자가 유한한 육체를 입고 태어나신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의 강생하심 하나만으로도 그의 겸손함에 따라갈 자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치, 능력, 영광의 크기, 높이, 넓이, 깊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권리를 최고의 인간의 가치로 여기는 현 우리의 문화속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슴에 와닿지 않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치, 능력, 영광의 크기, 높이, 넓이, 깊이를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별볼일 없는 존재인지를 쉽게 인정할 수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을때에 비로써 그리스도의 강생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며 그의 겸손의 차원이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초월하는지를 알 수 있다.

둘째 단계: 비천한 지위에 나섰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야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국가와 민족의 통치자로 또는 세상의 군림자로 화려하게 이 땅에 올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너무도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 지심이다. 자신의 위치, 능력, 영광을 내세워 자신을 나타내려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어 자신의 창조물인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스도는 말 구유에서 태어났으며, 가난한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났으며, 천한 목수의 일을 하셨으며, 인간 세례요한에게 나아가 자신을 낮추어 세례를 받으셨으며, 40 주야를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린 후에 사악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으며, 어부들과 세리들과 더불어 친구삼고 제자를 삼았으며, 밤이 되면 그의 머리를 설만한 반반한 공간하나 없었으며, 가난한 자와 병든자들을 위해 수고하셨으며, 사람들에게 이리저리로 쫓겨다니 시기도 하셨으며, 제자에게까지 배신을 당하셨으며 부인까지 받으셨으며, 이스라엘의 권세있는 자들의 엉뚱한 송사를 받았으며, 로마인 빌라도에게로 부터 형을 받았으며, 십자가를 메고 수 많은 고난과 수난의 길을 걸어 골고다에까지 가셨으며, 별거벗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셨으며, 육신의 죽음을 체험하셨다.

이 모든것은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실 것을 미리하시고 오신 그리스도의 낮아 지심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단계: 율법 아래 복종하셨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세우시고 인간들에게 주신 분이다. 그는 율법 위에 계신 분이다. 율법은 그에게 적용되지도 될 수도 없다. 그러나 그는 모든 다른 인간들과 같이 자신을 율법 아래 두었으며 율법의 요구에 복종하셨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하게 복종했다.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었던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는 모든 다른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사단의 시험을 받도록 허락을 했을 뿐 아니라 그 모든 시험을 직접 체험하셨다. 무한하신 자가 유한한 자의 한계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체험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 지심이다.

넷째 단계: 이 땅에서 여러가지 비참함을 당하셨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자존심은 자신이 비참하게 되는 것과 또는 다른 사람 앞에서 비참함을 당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 자존심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한다. 자존심 때문에 나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기도 한다. 자존심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살인하기까지 한다. 자존심을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기도 한다. 자존심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며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리스도에게도 자존심이 있을만했다. 그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심과 무한자이며 창조주라는 자존심이 있을만도 하지만 그는 그의 자존심을 내 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끌려다니며, 가시관을 썼으며, 침 뱀음을 당하고, 욕설을 받으며, 피 투성이가 된 상황에서 끝없는 채찍질을 맞았다. (이사야 53:4)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이렇게 당하셨던 것이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 지심이다.

다섯째 단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몸소 체험하셨다. 인간의 손에서 비참함을 당하심도 엄청난 사건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참함의 절정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질렀을때의 비참함은 어디 비길데 없다. (마태복음 27:46)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절정을 표현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3:13)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 지심이다.

여섯째 단계: 십자가에서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가 마치 지옥의 형벌을 받은 것과 같은 고통을 의미한다. 그는 메시야로써 이런 죽음을 체험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 지심이다.

예수님은 왜 낮아 지셨나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의 낮아 지심은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단번에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낮아 지심이 아니고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만약 다른 방법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고: 마태복음 26:39) 그러나 이 방법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되심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이다.